

종교개혁가 부셔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황 대 우
(고신대학교)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어떠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금 장로 대통령의 통치 아래 불교와 기독교 사이의 갈등이 가열되어 가고 있고 WCC 문제로 인한 기독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교회사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크게 다섯 가지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것은 상호 이질적 갈등관계, 상호 일체적 혼합관계, 상호 독립적 연합관계, 상호 분리적 적대관계, 그리고 상호 독립적 공존관계이다.¹⁾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합법적인 종교(religio licita)로 공인하기까지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두 기관은 상호 갈등관계였다. 이런 갈등관계에 '이질적'이란 형용사를 붙인 것은 로마제국이 종교다원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기독교의 이질적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공인 이후 380년 2월 27일에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 즉 국교로 선언함으로써²⁾ 기독교는 공적

1) 이것은 필자가 임의로 구분한 것임.

2)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Theodosius_I.

으로 국가와 일체, 즉 한 몸이 되었고 이런 상호 혼합관계가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의 지배형태로, 서방교회에서는 교황황제주의(Papocaesarism)의 지배형태로 등장한다. 황제교황주의란 황제와 교황, 즉 총대주교의 관계에서 황제가 우위에 있는 황제 중심의 일체형태를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교황황제주의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교황이 우위에 있는 교황 중심의 일체형태를 의미한다. 물론 서방교회 전역사를 교황황제주의적 혼합관계로만 규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늘 교황황제주의적 관계였다.

종교개혁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두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많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 주장된 상호 독립적 연합관계와 재세레파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된 상호 분리적 적대관계이다. 스위스 취리히(Zürich)의 종교개혁가들을 제외한 많은 16세기 개혁파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와 국가 둘 다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신앙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상호 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로 보았다. 그리고 재세레파는 국가를 악한 세상과 동일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멀리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

마지막으로 근대와 현대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 공존관계이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상호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공존관계이다. 하지만 이 공존관계가 상호 분리적일 수 없는 것은 두 기관이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론 상호 간의 갈등을 넘어 적대관계가 되기도 하고, 때론 공조관계를 넘어 연합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 다섯 가지 관계 모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의 모델은 그 자신의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같은 성경 본문이라 할지라도 해석은 이미 해석자가 어떤 입장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 즉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조명하되 특별히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써의 사상을 중심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관계는 위에서 분류된 다섯 가지 관계 모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도 함께 밝힐 것이다.

I.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공화국'(sola Christianorum Respublica)인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라는 개념은³⁾ 부써의 교회론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⁴⁾ 부활과 승천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를 자신의 나라 시민인 자기 백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온 세상에 대해서도 수행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세상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나 무기 없이도 오직 자신의 말씀과 성령만으로 그 권세를 실행하고 관리하시기 때문이다.⁵⁾ 그분 자신의 '고유한 직임'(munus proprium)인 복음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공화국'(sola Christianorum Respublica)으로 건설하신다.⁶⁾

3) '그리스도의 나라의 고유한 특성들'(propria regni Christi)에 관한 부써의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7-14 & 34sq.

4) 참조. G.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110.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W. Pauck, *Das Reich Gottes*, 13-19.

5)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5-6: "Potestatem acceperat a patre omnem in coelo et terra, Matth. ultimo [18], Eam autem potestatem exercebat et adm[ini]strabat uerbo tantum et Spiritu, nullis omnino adminiculis, instrumentis aut armis mundi."

6) B. Ev. (1527) I, 127b (= B. Ev. (1536), 93).

그러므로 각각의 지상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복음의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교회들은 그분께 속한 것이 아니다.⁷⁾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 즉 왕직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나라인 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씨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교회라는 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정부는 황제의 말이 들려지고 그의 명령이 지켜지는 황제직에 속한 것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한 소망으로 들려지고 그러한 열심으로 보존되는 곳은 또한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참된 교회이다.”⁸⁾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속에 실제로’ (realiter apud et inter nos) 존재한다.⁹⁾ 이것이 부씨의 ‘그리스도의 나라’ (regnum Christi)라는 개념에 기본적인 것이다.¹⁰⁾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적 일시성과 천상적 영원성이라는 이중적 차원의 것이다.¹¹⁾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상적 현재성은 교회이다.¹²⁾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분께서 이 세상 속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자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지상적 교회에서

7)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28: "..., quod omnis Christi Ecclesia debet esse euangelizatrix ita, ut in omni sanctorum coetu sonet uox Euangelii assidue, fiducia maxima et studio ardentissimo. In quibus ergo Ecclesiis uox illa silet, hae frustra se Christi Ecclesias uocant."

8) MBDS 1(Das ym selbs, 1523), 44: "Dann wie kein zweifel ist die Statt ghor zum keyserthumb, in der des keyser's wort gehort und sein gebott gehalten würt. Also ist es gewisßlich auch das reich Christi und die wore kirch, wo das wort Christi mit solchem lust gehort und fleiß bewart würt." 참조,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33: "..., Dominum et regem nostrum Christum omnia haec effecturum propter gloriam nominis sui, atque eo, ut regnum et ciuitatem habeat sanctam in terris, hoc est, Ecclesiam, eamque omni pietate et uirtute exornatam."

9)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3.

10) 부씨가 '나라' (regnum)라는 용어로 교회를 말할 때 그가 그것으로 통치나 왕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의미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에 반대한다. W. Pauck, *Das Reich Gottes*, 6: "Wir haben das regnum Christi als die Herrschaft Christi zu erklären, die sich nur in den wahren Christen auswirkt, denen Christus den Geist verleiht."

11) B. Ev. (1527) I, 127a-118a & II, 143a-144a (= B. Ev. (1536), 93 & 322). 참고, K. Koch, *Studium Pietatis*, 51-54.

12) K. Koch, *Studium Pietatis*, 51.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실현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자신의 나라의 참된 시민으로 주신 자들을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설복하신다.¹⁴⁾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머물지도 못한다.¹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에 첨가되었다.¹⁶⁾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끊임없이 ‘폭군인 사탄의 나라’ (regnum satanae tyranni)와 싸운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사탄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다.¹⁷⁾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한 ‘영원한 구원의 관료요 경영’ (administratio et procuratio salutis aeternae)이다.¹⁸⁾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장수하는 씨’ (semen longaeuum)라 부르신다.¹⁹⁾ 부씨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성’ (sola civitas Dei)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모으시는 선택 받은 자들의 교제 즉 공동체인 ‘성도들의 교회’ (Ecclesia Sanctorum)라고 정의한다.²⁰⁾ 루터(Luther)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처럼²¹⁾ 부씨에게 있어

13)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3: "... sit regnum Christi eius hominibus, quos habet in hoc saeculo, ..."

14)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5: "Quos enim pater ei donasset ueros regni sui ciues, hos uerbo permouit et Spiritu suo, ..."

15)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26: "..., neminem in regnum uenire Christi et in eo perseuerare, nisi afflatum et innouatum Spiritu eius, ..."

16) B. Eph. (1527), 66aver: "... beneuolentiam DEI, qua & ipsi regno Christi adducti fuerant, ..."

17) B. Eph. (1527), 48b-49aver: "Etenim qui filii Dei sunt, hos agit spiritus Dei Rom. 8. Facessit quidem & his aduersarius negocium, eo quod corpus peccato obnoxium adhuc circumferunt, uerum quoniam eius tyrannide per Christum uindicati sunt, exercere illos potest, perdere non[49a] potest, ..."

18)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54. 참고. W. Pauck, *Das Reich Gottes*, 13.

19)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30.

20)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98: "... wir sein reich und leib."

21) K. Holl, *Gesammelte Aussätze* I, 340sq.

서도 '기독교의 몸' (corpus christianum)은 단지 '신비한 몸' (corpus mysticum)인 교회를 의미한다.

II.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

부씨는 기독교, 즉 지상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과 동일시 한다.²²⁾ 사탄의 나라는 파괴될 것이다.²³⁾ 반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와 동일하기 때문이다.²⁴⁾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맹세로 세워졌으므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²⁵⁾ 이런 의미에서 그 나라는 천국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록 여전히 현재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하늘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분을 부르는 곳이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곳이다.”²⁶⁾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면 분명

22) 참고, W. Pauck, *Das Reich Gottes*, 5-19; K. Koch, *Studium Pietatis*, 50-54;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98 n.43.

23)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47: "..., Deum semper adfore huic regi nostro ad dexteram, eiusque hostes omnino tandem confecturum, ..."

24) B. Ev. (1527) II, 144a (= B. Ev. (1536), 322-323): "..., simpliciter potest aeternum dici regnum Christi, praesertim cum[323] idem et patris sit."

25)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47: "..., regnum Christi constitutum esse iuramento Dei immutabili, ac proinde fore regnum aeternum."

26)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6: "Primum enim, cum regnum uocatur coelorum, clare exprimitur, illud non esse de hoc mundo, tametsi sit in nobis, qui in praesenti adhuc mundo uersamur [Ioan. 17, 11; 18, 36]. De coelo enim, ubi patrem nostrum, uerum Deum et conditorem nostrum habemus et inuocamus, ubi rex noster Iesus Christus sedet ad dexteram patris, et *instaurat quae sunt in coelo et in terra omnia*, Ephes. 1 [10], ..."

우리가 지금 이미 믿음으로 그분들의 호의뿐만 아니라 행복,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평화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²⁷⁾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께 자신의 나라를 이양하실 때 만물은 신성으로 충만할 것이다.²⁸⁾ 이런 점에서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불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안에서 만물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이양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즉, 마지막 대적인 죽음이 소멸될 때 그리스도의 나라의 끝이 올 것이며 그 때 중보직과 중재직이 끝나게 될 것이다.”²⁹⁾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둘 다 ‘구원하는 나라’ (regnum saluificum)로써 동일하다.³⁰⁾ 하나님 나라 밖에서는 구원도 선행도 없다.³¹⁾ 하늘 나라는 한 몸으로서의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간의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³²⁾ 부씨가 교회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regnum Christi et Dei)로 정의하는 이 사실로부터 그의 종말론적 교회론이 유추될 수 있다. 나라들과 권세들을 소멸하시는 유일한 소멸자이시고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외적인 나라와 자유로운 공화국 관리를 맡기셨을 때 그들 역시 진정으로 모든 정치적 권력과 모든 외적인 권세를 그분께 맡기는 것은 그분의

27) B. Eph. (1527), 22b: “... si enim Deus pater, & IESUS Christus, qui iuxta nomen suum seruator & beator est suorum, Dominus noster existit, certi sumus, ut beneuolentiae eorum, ita & solide felicitatis, quae pax illa Dei & Christi est, nos compotes & iam per fidem esse, ...”

28) B. Eph. (1527), 74aver: “Tandem autem tradet hic noster, regnum Deo & patri, tum plena erunt diuinitate omnia.”

29) B. Ev. (1527) II, 143b (= B. Ev. (1536), 322): “Regnum patris uocat, quia tum Christus Deo & patri, regnum tradet, ut sit ipse omnia in omnibus. Finis nanque regni Christi erit, cum mediandi, & intercedendi finis, aderit, quando extinctus ultimus hostis erat [erit (1536)], mors, de quibus 1. Cor. 15.”

30)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44: “... idem esse Dei et Christi regnum, ...”

31) B. Ps., 25: “... Aduenias regnum tuum: extra quod nulla salus, nihilque boni est.”

32) MBOL 2(Ioh.), 71: “... voluit [God] arttissimam vitae inter suos societatem esse ut alii aliorum membra, unersi ecclesiam velut corpus unum constituerent. Hanc regnum coelorum in evangelicis literis vocavit, ...”

나라와 그분의 순수하고 참된 종교가 그들에게 번성하고 항상 전진하며 어디 서나 가능한 풍성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³³⁾ 우리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 그 나라에 함께 부름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된다.³⁴⁾

III. 두 나라: 교회와 정부

'뮌스터의 영과 가르침' (Münsterische Geist und Lehre)과는 달리 부씨는 '그리스도의 나라' (Reich Christi) 대신에 일시적인 나라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³⁵⁾ 처음부터 부씨는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교회와 세상 나라로서 정부 사이의 기능적인 차이를 지적한다.³⁶⁾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독교의 머리이시며 다른 누구도 아니다. 육적으로 우리는 세상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께만 속해 있다."³⁷⁾ 국가와 교회는 병존한다.³⁸⁾ 지상 정부의 직분은 외적인 일들을 위해 선한

33)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296: "..., si unicus regnorum potestatumque distributor et conseruator omnium, rex Christus, dedit eiusmodi suis populis etiam externum regnum liberamque reipublicae administrationem, ..., omnem sane et politicam potestatem cunctasque externas opes conferent eo, ut eius regnum puraque et solida eius religio apud se uigeat, semper prouehatur et quam plenissime ubique obtineat."

34)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6: "..., et in regnum hoc per Euangelium et Spiritum sanctum conuocamur, et ad uitam aeternam regimur."

35) MBDS 17(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141.

36) 함만(Hammann)에 따르면 부씨의 이런 입장은 루터와 일치한다. 두 나라 이론과 관련하여 그는 부씨의 신학적 독립성이 루터의 '긴장' (intertensio) 관계와 츠빙글리(Zwingli)의 '공역' (cooperatio) 관계 사이의 '중도' (via media)를 취한 것에 있다고 본다. 참고, G.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310.

37) MBDS 2(Handel mit Cunrat Treger, 1523), 151: "Dann Christus ist das haubt der christenheit und nyemant anders. Im leiplichen haben wir die weltliche oberkeit in geistlichen ist Christus der herr, des seid wir auch allein," 부씨의 이러한 표현은 '교회와 정부' (ecclesia et magistratus)의 관계를 '영혼과 육체' (animus et corpus)에 비유하는 츠빙글리의 이론론적 관계설정과 다른 것이다. 참고, G.W. Locher, *Zwingli's Thought*, 210, n.307.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여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고 처벌을 통해 불경건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꺾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섬김이 온 교회 위에 세워진 것은 공공의 평화와 권위를 유지함으로써 교회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³⁹⁾ 이런 점에서 지상 정부의 의무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⁴⁰⁾ “그러나 비록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세상 정부의 섬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설교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를 다스려야 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진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력 밖에 있지 않고 모든 곳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규정된 것이라면 분명히 뒤따라 오는

38) W. Pauck, *Das Reich Gottes*, 55. 츠빙글리와는 달리 부씨는 교회를 국가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교회를 국가를 동일시하는 츠빙글리의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ZW 14(*Jeremia-Erklärungen*, 1531), 424: “... Christianum hominem nihil aliud esse quam fidelem ac bonum civem, urbem Christianam nihil quam ecclesiam Christianam esse.” ; B. Brockelmann, *Das Corpus Christianum bei Zwingli*, 32sq; A. Farmer,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3-9; B.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35sq; G.W. Locher, *Zwingli's Thought*, 228sq; W. van 't Spijker, “De ambten bij Zwingli”, 66; idem, “Zwingli's staatskerk”, 122; W.P. Stepiens,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282 & 286.

39) MBDS 1(*Das ym selbs*, 1523), 55: “Der nechst noch der geistlichen standt ist der standt weltlicher oberkeit, welcher ampt, ..., sonder stot darin, das in usserlichem gut ordnung und friden gehalten werd, die frummen beschutzet, die unfrummen von beleydigung der frummen durch straff abgehalten, yedoch so ist ir dyenst uff die gantz gemeyn gericht, deren wolfart zu schafffen mit erhaltung gemeynes fridens und rechtens.”

40) MBDS 1(Summary, 1523), 144; K. Koch, *Studium Pietatis*, 155. 그리스도인의 삶과 부씨의 국가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민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W. Pauck, *Das Reich Gottes*, passim. 특히 64와 199. 루터에게 있어서 세상 정부의 사역이 가지는 영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LW 1(*An den christlichen Adel*, 1520), 369 & 373 (= WA 6, 410 & 413.): “... wie wol sie [= weltlich hirschafft] ein leylich werck hat doch geystlichs stands ist ...” & “.../ sonderlich die weyl sie [= de keizers] nu auch mitschristen sein / mitpriester / mitgeystlich / mitmechtig / in allen dingen / vnd sol yhre ampt vnd werck das sie von got haben vbir yderman / lassen frey gehen / wo es not vnd nutz ist zugehen.” 루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와 정부의 공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한 권세를 세상 정부에도 주셔서 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다.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정부의 봉사는 사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들 위에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가고 그분은 모든 통치자들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고 찬양되는 것이다.” 41)

그러므로 세상 정부는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고위의 적극적인 기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고유한 일’ (opus proprium reipublicae)인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안녕이란 특별한 일을 위해 공동체가 세운 몇몇 사람들의 사역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상 정부의 직무는, 신실하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성직자들의 직무 다음으로 가장 가치 있다. 42) ‘세상 통치자의 직무’ (ampt weltlicher regierer) 역시 백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 43) 하지만 이기적인 정부는 공동체 전체를 영광스럽고 기독교적인 다스림으로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 44) 이런 국가의 목표는 ‘종교적이고 도덕적’ (ein

41) MBDS 1(Das ym selbs. 1523), 55-56: “Wiewol aber weltlicher oberkeit dyenst, die sye der gemeyn schuldig ist, nit in dem stot, das sye das gottlich wort und gesatz predigen zu uffgang gottlichs worts helfen, Dann so kein gewalt ist on von gott und der gewalt, der allenthalben ist, ist von gott geordnet, so folget ye gewißlich, das er nach gottlicher ordnung und willen gebraucht werden soll, also das ir dyenst endtlich die wolfart deren, über die der gewalt ist, also schaffe, das dadurch das lob gottes uffgang, und er der [Herr] aller[56] herrschenden und künig aller künig erkant und geprisen werd.”

42) MBDS 1(Das ym selbs. 1523), 55: “das dann gar vil mer ist dann in sonderlichen handeln sonderlichen menschen von der gemeyn zu dyenst sein. Deßhalb noch dem ampt der geistlichen, das do ist, die gemeyn treulich mit dem gotswort versehen, ist das ampt weltlicher oberkeit das würdigist.” 여기서 부쳐는 ‘모든 시민들의 한 몸’ (unum corpus civium omnium)을 ‘이 몸의 한 시민’ (unus civis eius)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은 중세 후기 독일 서쪽과 남쪽의 자유 도시들의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독교의 몸’ (corpus christianum)이라는 개념에 상응한다. 뮐러(Moeller)는 이 도시 사회 체도를 ‘집합적 개인’ (Kollektivindividuum)과 ‘종교적 공동체’ (sakrale Gemeinschaft)로 정의한다. 참고, B.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11sq.

43) MBDS 1(Das ym selbs. 1523), 55: “Und [das ampt weltlicher oberkeit] erfordert auch leit, die sich selb gar verleücknen und mitnichten das ir suchen.”

religiös-sittlicher)이다.⁴⁵⁾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는 '신성한 권위'(sacrosancta autoritas)와 '신성한 공권력'(potestas publica sacrosancta)을 갖는다.⁴⁶⁾ 즉, 세상 정부도 역시 신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씨는 지상의 정부가 참으로 기독교적이어야, 즉 '기독교 공화국'(Respublica Christiana)이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⁴⁷⁾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모든 것에 앞서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며 정의가 정의가 아니고 유익해야만 했던 것이 손해를 끼칠 뿐이기 때문이다."⁴⁸⁾

부씨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분될 수는 있으나 분리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고 경건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그 둘 사이에는 상호간의 섬김이 있다.⁵⁰⁾ 왜냐하면 이 두 질서는 공공의 유익을 증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으로 이웃의 유익을 극대화하

44) MBDS 1(Das ym selbs. 1523), 55: "... vil mer hindert [eygen gesuch] einer gantzen gemeyn, in erbarem und christlichem regiment zu dyenen."

45) W. Pauck, *Das Reich Gottes*, 21; M.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69sq.

46) MBOL 1(Epistola Apogetica. 1530), 112: B. Rom., 558sq; MBDS 17(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141: "Lehren wir von der Oberkeit nach dem wort des Herren, das ir ampt ein heilig Gottlich ampt ist, ..." 참고. M. de Kroon, "Das Obrigkeitsverständnis", 214.

47) 코흐(Koch)는 이 정부를 '기독교적 도성'(Civitas Christiana)이라 부른다. 참고. K. Koch, *Studium Pietatis*, 154sqq.

48) MBDS 1(Das ym selbs. 1523), 56: "Dann wo nit gott erkant und sein gehorsam vor allem uffgericht würt, ist der frid kein frid, das recht kein recht und bringt schaden alles, das do nutzlich sein solt."

49) MBDS 17(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141: "..., und welche [=정부의 직무] das verwalten, das die vor allem helffen sollen, das man Gott recht diene und ein Gottselig erbar leben fure."

50) K. Koch, *Studium Pietatis*, 166. 이 경우에 부씨의 정치론은 분명하게 중세의 두 가지 주요 국가 개념인 '교회의 국가 지배 체제'(Kirchenstaatshoheit)와 '국가의 교회 지배 체제'(Staatskirchenhoheit)와 구분되어야 하는데, 두 체제 모두 교회와 국가의 혼합성을 대표한다. 중세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E. Friedberg, *Lehrbuch des katholischen und evangelischen Kirchenrechts*, 52-62; W.M. Plöchl, *Geschichte des Kirchenrechts* II, 31-36.

고 이웃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가장 기독교적인 질서와 직업이다.⁵¹⁾ 교회 없이는 참된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국가 없이는 결코 질서 정연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⁵²⁾ 이 점에서 부셔의 두 나라 이론은 어느 정도 어거스틴(Augustinus=Augustine)의 ‘두 도성’(duae civitates)⁵³⁾ 사상과 구별되고 또한 루터의 ‘두 나라’(dua regna)⁵⁴⁾ 개념과도 구별된다.⁵⁵⁾ 왜냐하면 어거스틴과 루터와는 달리⁵⁶⁾ 부셔에게 있어서 두 국가 이론은 결코 변증법적 평행 현상

51) MBDS 1(Das ym selbs. 1523), 58: "Noch disen zweyen gemeynen standen zu fürderung gemeynes nutz von gott eingesetzt, ... seind die christlichsten stand und handyerungen, die den nechsten am meysten nutz und am wenigisten beschwarde zufuren."

52) W. Pauck, *Das Reich Gottes*, 55.

53) CCL 48(De civitate Dei 15-1), 453 (= MPL 41, 437.): "Arbitror tamen satis nos iam fecisse magnis et difficillimis quaestionibus de initio uel mundi uel animae uel ipsius generis humani, quod in duo genera distribuimus, unum eorum, qui secundum hominem, alterum eorum, qui secundum Deum uiuunt; quas etiam mystice appellamus ciuitates duas, hoc est duas societates hominum, quarum est una quae praedestinata est in aeternum regnare cum Deo, altera aeternum supplicium subire cum diabolo."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어거스틴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X.P. Duijnstee, *St. Aurelius Augustinus over kerk en staat*, 236-352; A. Sizoo, *Augustinus over den staat*, 10sq & 18sq; J. van Oort, *Jeruzalem en Babylon*, 97-119.

54) LW 2(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364-366 (= WA 11, 249-251.): ".../ Hie müssen wyr Adams kinder vnd alle menschen teylen ynn zwey teyll / die ersten zum reych Gottis / die andern zum reych der welt. Die zum reych Gottis gehören / das sind alle recht glewbigen ynn Christo vnnnd vnter Christo / Denn Christus ist der konig vnnnd herr ym reych Gottis / ... [366] [251] ... Zum reych der welt oder vnter dz gesetz gehören alle / die nicht Christen sind / Denn syntemal wenig glewbigen vnd das weniger teyl sich hellt nach Christlicher art / das es nicht widerstrebe dem vbel / Ya das es nicht selb vbel thue / hat Gott den selben / ausser dem Christlichen stand vnnnd Gottis reych / eyn ander regiment verschafft / vnnnd sie vnter das schwerd geworffen / ... / Darumb hatt Gott die zwey regiment verordnet / das geystliche / wilchs Christen vnnnd frum leutt macht durch den heyligen geyst vnter Christo / vnnnd das weltlichen / wilchs den vnchristen vnd hoβen weret / das sie euβerlich müssen frid hallten vnd still seyn on yhren danck."

55) 참고. K. Koch, *Studium Pietatis*, 153sq.

56) 루터의 두 나라 이론과 어거스틴의 두 나라 이론에 관한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E. Kinder, "Gottesreich und Weltreich", 40-69; H. Bornkam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179-188. 두 나라 이론과 관련하여 보른캄(Bornkamm)은 어거스틴의 문제가 루터의 '삼차원적'(dreidimensional) 개념과 대조되는 '거의 순수하게 일차원적'(fast rein eindimensional)이라는

이나 이원론으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이다.⁵⁷⁾ 비록 루터와 부썰 모두 재세례 파와는 달리 세상 정부의 필요와 정당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마치 어거스틴처럼 두 나라의 차이점과 각각의 독립성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⁵⁸⁾ 부썰은 두 나라 사이의 집합적 관계를 강조한다.⁵⁹⁾ 교회를 영적이고 내적인 영역으로 본 루터는 그것을 육적이고 외적인 영역의 정부와 날카롭게 구분하려고 했다.⁶⁰⁾ 이와 반대로 부썰은 교회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루터와 어거스틴을 구분한다.

- 57) 비록 루터의 '두 나라' (duo regna)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이원론이 마니교(Mani)나 재세례파의 이원론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루터가 자신의 두 나라 이론에서 세운 날카로운 평행구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평행구조는 지상 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 역사에 대한 루터의 부정적이고 비관주의적인 견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참고. K. Müller, *Kirche, Gemeinde und Obrichkeit*, 188q; P.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136. 알트하우스(Althaus)는 두 가지 통치에 대한 루터의 교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성경적 이원론' (dem biblischen Dualismus)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 P.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57.
- 58) LW 2(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367 (= WA 11, 252): "Danumb muß man dise beyde regiment mit vleyß scheidyn vnd beydes bleyben lassen / Eins das frum macht / Das ander das eußerlich frid schaffe vnd bosen wercken weret / keyns ist on das ander gnug ynn der welt / ..." 루터가 두 나라 사이의 구분을 강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H. Die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107-131. 디엠(Diem)의 판단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의 혼합이론이나 재세례파 혹은 영성주의자들의 혼합이론이 루터가 두 나라를 '분리' (Aufteilung)하게 된 원인이다.
- 59) 참고. F. Wendel, *L' Eglise de Strasbourg*, 165sq; B.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40; K. Koch, *Studium Pietatis*, 153; G. Hammann, *Entre secte et la cité*, 320sq. 정부를 동역자로 보는 부썰의 견해는 츠빙글리의 견해와 유사하다. 참조. B. Moeller, *Reichsstadt und Reformation*, 34-49. 교회와 정부에 관한 츠빙글리의 자세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 Bavinck, *De Ethiek van Zwingli*, 122-171; A. Farmer, *Die Lehre von Kirche und Staat bei Zwingli*, passim. 특히 85sq; B. Brockelmann, *Das Corpus Christianum bei Zwingli*, passim. 특히 56-61; W. van 't Spijker, "De ambten bij Zwingli", 65-68; idem, "Zwingli's staatskerk", 121sq; W.P. Stephens, *The Theology of Huldrych Zwingli*, 282-309.
- 60) 루터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나라만을 다스리신다. 참고. WA 11(Predigten, 1523), 202: "Christus solum spirituale regnum habet, ideo non curat hoc [= regnum Caesaris] nec setzet ein, sed deus hats eingesetzt, Christus non curat tonitrum, sed deus." ; P.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52. n.20.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즉 세상 나라를 소유하심은 오직 종말론적인 미래 사건일뿐이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 (regnum gloriae)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 안에서 다스리실 나라이다. 이 점에서 분명한 사실은 디엠(Diem)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 없이는 루터의 두 나라 이론을 정확히

왕이신 그리스도의 협의의 통치와 광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그 둘을 통합하려고 했다.⁶¹⁾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스스로를 세상 나라와 권세에 예속시킬 때 참된 세상 나라는 모두 각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스스로를 종속시킨다.⁶²⁾ 비텐베르크의 개혁자처럼⁶³⁾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역시⁶⁴⁾ 모든 지상 권세의 존재와 기능을 '사랑의 법' (lex charitatis)에서 발견한다. 하지만 두 개혁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황금률로서의 사랑의 법은 자연법을 의미하는데⁶⁵⁾ 이 자연법은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이다.⁶⁶⁾ 반면에 부셔는 이웃사랑의 기초 원리를 단지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재창조질서에서 찾는다.⁶⁷⁾ 부셔에게 있어서 창조의 목적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H. Die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 169sq.

- 61) 부셔의 정치 사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정치(Christocracy,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는 상대적으로 루터의 정치 사상에서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 참고. E. Wolf, *Peregrinatio* II, 209.
- 62)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296: "Porro, sicut se regnum Christi regnis et potestatis subiiit mundi: sic contra omne uerum mundi regnum (regnum dico, non tyrannidem) subiicit se regno Christi, ..."
- 63) LW 2(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391 & 393 (= WA 11, 277 & 279.): "Vnnd hyrnyen mustu nicht ansehen / das deyne / vnd wie du herre bleybst / sondern dein vnterthanen / den du schutz vnd hillf schuldig bist / auff das solch werck ynn der liebe gehe." & "Synd sie aber beyde vnchristen / odder der eyne nicht will nach der liebe recht richten lassen / die magstu lassen eyne ander richter suchen vnnd yhm ansagenn / das sie widder Gott vnnd naturlich recht thun / ob sie gleych bey menschen recht die strenge scherffe erlangen. Denn die natur leret / wie die liebe thut / das ich thun soll / was ich myr wollt gethan haben."
참조. WA 1, 502 (Decem praecepta, 1518): "Haec enim est lex et prophetae, scilicet lex et prophetae sola charitate implentur. ideo si est lex naturae, est naturae sanae et incorruptae, quae idem est cum charitate."
- 64) MBDS 1(Das ym selbs, 1523), 55: "..., (dann ye on die liebe, welche das ir nit sucht, kein handel christlich oder redlich sein kan) ..."
- 65) J. Heckel, *Lex charitatis*, 67; P. Althaus, *Die Ethik Martin Luthers*, 36sq & 40sq; H. Bornkam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172.
- 66) 창조질서라는 용어는 루터 연구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과는 달리 디엠크는 루터가 이 용어를 모른다고 언급한다. 참고. H. Diem, "Luthers Lehre von den zwei Reichen", 57sq.
- 67) 파우크(Pauk)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부셔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지국

재창조의 목적과 다른 것이 없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⁶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nach gottlicher bildtnüß)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동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추구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과 형제들의 지복만을 추구한다."⁶⁹⁾ 사람은 각자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계명을 따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섬기되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⁷⁰⁾

'자연법' (lex naturae)으로서의 황금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기독교적인 삶에서 참된 형상을 획득한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완결'로서의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⁷¹⁾ 성령 안에서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인데, 그것은 보혜사,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모세 율법의 창조자로서의 영광과 동일한 영이시기 때문이다.⁷²⁾ 두 나라에 대한 부씨의 가르침에는 '사랑의 법' (lex charitatis = ordo dilectionis, 사랑의 질서)이라는 개념이⁷³⁾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데,

가' (christlichen Wohlfahrtsstaat)의 기초가 '자연법' (in dem Naturrecht)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율법' (in dem positiven Gesetz Gottes)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W. Pauck, *Das Reich Gottes*, 55.

68) MBDS 1(Das ym selbs, 1523), 59.

69) MBDS 1(Das ym selbs, 1523), 51: "..., das er in allen seinem thun nichts eygens, aber allein die wolart seiner nechsten menschen und bruder suche zu der eer gottes."

70) MBDS 1(Das ym selbs, 1523), 59: "Auß disem allen nun ists klar, das gottlichem geschopf, ordnung und gebott nach im selb niemant, aber yedeman seinem nechsten umb gots willen leben und dyenen soll in geistlichem und leiplichem auß allen sein krefftten, die aber am fünften so zu fürderung gemeynes nutz, es sey in geistlichem oder weltlichem berufft und gesetzet seind."

71) MBDS 1(Das ym selbs, 1523), 59; B. Ev. (1536), 194sq.

72) MBOL 1(Epistola Apologetica, 1530), 112: "... Spiritus ... legis illius [= Mose] conditor," ; A. Molnár, "La correspondance" (아우구스타(Augusta)에게 보낸 부씨의 서신, 1541), 145: "Mais les institutions et les gouvernements des cités n' en sont pas moins l' œuvre de ce même esprit qui gouverne les institutions et les ministères ecclésiastiques."

73) 사랑의 법과 사랑의 질서에 관한 부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K. Koch, *Studium Pietatis*,

이 연결고리를 통해 정부의 물리적 통치가 교회의 영적 통치와 결합된다. 시민의 삶을 다스리는 국가법은 사랑이다.⁷⁴⁾ 따라서 기독교 국가는 일종의 기독교 사랑공동체가 되어야 한다.⁷⁵⁾ 하지만 이 사랑은 결코 모든 것이 관용되어야 한다는 관용주의로 전락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랑이 이 지상에서는 죄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항상 왼손에 징계의 막대기를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⁷⁶⁾ 왜냐하면 “선한 지도자의 목적은 백성을 악한 길로부터 불러내어 선한 길로 초대하는 것이며 어떤 불신자도 공적으로 용납하지 않고 참된 종교로 초대하는 것이기”⁷⁷⁾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평한 막대기’ (billiche straf)는 ‘순전한 사랑과 공훈과 지복’ (lauter liebe, barmhertzigkait und hayl) 이외의 다른 무엇이 아니다.⁷⁸⁾

70-73.

74) K. Koch, *Studium Pietatis*, 184. 안타깝게도 파우크는 기독교 사랑에 대한 부씨의 폭넓은 개념을 보지 못했다. 그의 책, *Das Reich Gottes*, 49에서 공적 생활을 위해 부씨가 관심을 가진 것은 ‘평등의 원리 (das Prinzip der Billigkeit)이지 ‘온전한 기독교 사랑의 원리 (das der vollen christlichen Liebe)가 아니라는 파우크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루터에게 있어서 정부의 ‘최고법’ (prima lex)은 ‘이성’ (ratio)이다. 참고, LW 2(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386 (= WA 11, 272.): “Darumb muß eyn furst das recht ia so fast ynn seyner hand haben als das schwert / vnnd mitt eygener vernunft messen wenn vnnd wo das recht der strenghe nach zu brauchen oxder zu lindern sey. Also das alltzeyt vber alles recht regire vnnd das vberst recht vnnd meyster alles rechten bleybe die vernunft.”

75) W. Pauck, *Das Reich Gottes*, 49.

76)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105: “At, quia et gladii potestate, ut cunctis, quas a Domino acceperint, uiribus, sancti principes regnum Christi adserere debent ac propagare, et istud est in eorum officio, non tolerare quemquam sanae Euangelii doctrinae palam aduersari et conuitian.”

부씨의 국가관에 있어서 종교적 관용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8-23; idem, *Bucer en Calvijn*, 150-166.

77) B. Iud., 479: “Sed boni Principis finis est, vt populum auocet a malo, & inuitet ad bonum, ac neminem aperte impium toleret, inuitetque ad religionem veram: ...” 참조, MBOL 1(Epistola Apologetica, 1530), 111-117; B. Ev. (1536), 65, 137 & 428sq.

78) MBDS 6/2(Dialogi, 1535), 127.

IV. 기독교 정부

정부 사역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다.⁷⁹⁾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과 양떼를 다스릴 모든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a Deo) 받았는데, 그것을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ad fidei atque salutis eorum aedificationem, non ad destructionem) 받았기 때문이다.⁸⁰⁾ 부씨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신정을 기독교 정치형태의 모델로 간주한다.⁸¹⁾ 시행정장관이 우두머리에 있는 공화국이 마치 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서로를 지체로 본다.⁸²⁾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로서의 교회와 세상 나라로서의 정부 사이의 유사성이 발생한다.⁸³⁾ '지복으로' (mit heyl)

79)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passim, 특히, 147sq, 156, 158, 188sq, 204 등등.;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56. 참고, M.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149sq.

80)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7. 참고, W. Trillhaas, "Regnum Christi", 62.

81) MBDS 1(Das ym selbs. 1523), 56sq;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47 & 151;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18 & 99sq. 참고, W. Pauck, *Das Reich Gottes*, 62sq & 66sq; G.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312.

82) B. Ev. (1536), 142: "..., quandoquidem Respublica uelut corpus est, cuius caput existit princeps, uel magistratus, ciues omnes membra inuicem habentur." ; W. Pauck, *Das Reich Gottes*, 61. 이것을 근거로 파우크는 국가에 의해 재건되는 사회의 실천적 성격이 교회에 의해 재건되는 사회의 성격과 동일하다고 결론짓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결론이다. 부씨는 어디에서도 교회와 국가를 한 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몸' (corpus)이라는 용어는 그 두 개체 각각을 위한 적절한 비유수단에 불과하다. Contra W. Pauck, *Das Reich Gottes*, 65: "Beide [= Staat und Kirch] stellen nebengeordnete Funktionen eines Körpers dar, ..."

83)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6-14. 여기서 부씨는 7 가지의 공통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한 명의 우두머리(unus administrat omnia), 백성을 경건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cunctos ciues suos pios et bonos efficiant), 선인들 가운데 감추어진 악인들에 대해 인내하는 것과 동시에 불의한 자들의 공적인 죄악에 대해 처벌하는 것(palam flagitiosi e ciuitatibus profligandi), 외적인 수단들을 통해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는 것(ciues recipere in regnum sacramentis externis),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것(prouidere ne quis egeat), 대적자들인 악한 사람들과 영들을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perpetuo contra hostes pugnare), 두 나라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mutua subiectio et subministratio).

다스리고 '폭군이 되지 않' (nit ein tyrann)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uβ dem volck gottes) 선택되어야 한다. 즉, 그는 다스리기 위한 '바른 신앙인' (recht glaubig)이어야 하고 그 자리에 부름받아야 하는데⁸⁴⁾ 그것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⁵⁾ 참된 종교는 경건한 지도자들 아래에서만 공적으로 힘이 있고 잘 살아가게 된다.⁸⁶⁾ "왜냐하면 만일 그 자신이 자신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보잘 것 없는 목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는 또한 자신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⁸⁷⁾ 하나님의 법과 규례는 인간의 모든 법칙과 규례들을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 '행정관' (magistrat)과 '정부' (oberkeit)의 모든 의무는 '하나님의 법에' (au β gottlichen gesatz) 의존적이다.⁸⁸⁾ 부씨에게 있어서 국가정치의 시금석으로서의 신적인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뿐이다.⁸⁹⁾ 그러므

84) MBDS 1(Das ym selbs, 1523), 56, 참고, B. Ev. (1536), 141sq.

85) MBDS 17(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141: "Lehren wir von der Oberkeit nach dem wort des Herren, das ir ampt ein heilig Gottlich ampt is, das niemand billicher tragen solle dann die allerbesten Christen, ..." 이것을 근거로 부씨는 개세례파의 국가 개념을 파괴적인 날조물로 보는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기 때문이다. 참조, MBOL 2(Ioh.), 306: "... quam perniciosum sit commentum Cathabaptistarum qui negant Christianum posse fungi magistratu."

86) B. Iud., 479: "... ergo non potest non sub piis Principibus publice vigere vera religio, & bene viui." '경건한 통치자' (pius magistratus)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B. Ev. (1536), 429sq;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18sq & 106; K. Koch, *Studium Pietatis*, 167sqq.

87) MBDS 1(Das ym selbs, 1523), 56: "Der dann wie er sich erkennt ein underhyrten gesetzt sein nit über sein eygen, sonder über die schaffin gottes, also gedencet er auch dieselbigen nit noch seim gutduncken, sonder nach dem gesatz gottes, des sye seind, zu regieren." 루터는 군주란 자신을 백성 아래 있는 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조, LW 2(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387 (= WA 11, 273): "Vnd nicht also dencke [eyn furst] / land vnd leutt sind meyn / ich wills machen wie myrs gefellet / sondernn also, Ich byn des lands vnd der leutt / ich sols machen / wie es yhn nutz vnd gut ist." 카다운스(Cardauns)에 따르면 백성이 군주 위에 있다는 개념은 중세의 유산이다. 참고, L. Cardauns, *Die Lehre vom Widerstandsrecht des Volks*, 22.

88) MBDS 1(Das ym selbs, 1523), 57.

로 성경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규칙이요 최선의 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⁹⁰⁾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유익과 안녕’ (uns aller nutz und wolfart)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둘 다에’ (in beydem geistlichen und weltlichem) 해당되기 때문이다.⁹¹⁾ 모든 기독교 정부가 하나님의 성경을 굳게 붙잡는다면 무엇이 선한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⁹²⁾ 이런 점에서 ‘세상의 군주’ (weltlichen fürstherren)들은 ‘목자’ (hyten)요, ‘아버지’ (vatter)요, ‘하나님의 대리자’ (statthalter gottes)가 되어야 한다.⁹³⁾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착취자가 아니라 목자로, 폭군이 아니라 아버지로 세우시기 때문이다.⁹⁴⁾ 정치가들과 권력가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의 목자로 세우신 지상의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길을 잃고 헤메는 양들을 찾아서 그분께로 모아들이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사용해야 한다.⁹⁵⁾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 (das werk Gottes und Christi)이다. 이런 점에서 부서는 정부 인사들을 “모든 사람 앞과 위에 있는 신들과 그리스도들”이라 부른다.⁹⁶⁾ “정부 인사들은 교회에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워야 한다. 학교

89) MBDS 2(Handel mit Cunrat Treger. 1523), 158.

90) 참조. W. Pauck, Das Reich Gottes, 64. 자신의 책 *Studium Pietatis*, 160에서 코흐는(K. Koch) 정부의 그와 같은 통치형태를 ‘성경적 통치’ (Bibliokratie)로 규정하고 싶어 한다.

91) MBDS 1(Das ym selbs. 1523), 58.

92) MBDS 1(Grund und ursach. 1524), 200: “... , ein jede Christliche oberkeit würt wol erkennen mogen, so sye die schrift gottes hat, ob ir ein meinung gemeß oder nit sey.” 참조. G. Hammann, *Entre la secte et la cité*, 313.

93) MBDS 1(Das ym selbs. 1523), 58. 참조. MBDS 6/2(Vom Ampt der oberkeit. 1535), 29: “... sy [= weltlich obren] God selb nennet Gotter, ordliche und gewaltigen, die er wille vatter und hyten sein seines volcks und seiner schaffin, welche er von der welt erwolet hatt.” ; MBOL 15(De regno Christi. 1550), 18: “... pastores populi ...”

94) B. Ps., 서문 2a: “His iam testatur vbique in arcanis Literis suis Deus se Principes non dominos, sed ministros: non exactores, sed pastores: non tyrannes qui eis pro sua libidine imperitent, sed patres qui seipos pro illorum salute impendant, praeficere: ...” 참조. B. Ev. (1536), 413: “... quod omnino pius magistratus seruiat, non dominantur.”

95)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47.

들과 아이들 교육기관을 감독해야 하며 아무도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떼어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97) 정부는 때때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악한 교회 직분자들을 그 직분에서 물러나도록 할 수 있다. 98) 하지만 교회의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잘 수행할 때에는 모든 경건한 왕들과 지도자들이 ‘그 사역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음성’ (vox Christi a ministris)을 듣게 된다. 99) 이런 방법으로 신실한 군주들과 행정관들은 ‘기독교를 실제로 확장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 (die Christenheit warlich zu erweiteren und zu besseren)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봉사할 수 있다. 100) 모든 진실한 왕들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들을 가진 자들이다. 101) 그러므로 세상의 지배자들은 온갖 종파와 이단들을 처벌할 수 있고 처벌해야 한다. 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기독교 정부의 치리는 교회 치리를 대신하지 않는데, 그것은

96)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47: “Die obren sind Gotter und Christi vor und ob allen anderen menschen, …” 참조. B. Ps., 331; MBOL 2(Ioh.), 350 & 365, “... vicarii Dei ... Hactenus igitur divinitatis participes sunt et *dei atque filii Altissimi* [Ps, 81, 6] iure vocantur.” & “... *dei ipsi filiique excelsi* ...” ; B. Ev. (1536), 428: “Dii in scriptura Dei principes & magistratus uocantur, ...”

97)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47 옆여백주: “Die Obren sollen den Kirchen getrewe Diener bestellen, die schulen und zucht der juget versehen, Niemand gestatten, sich selv oder andere von gesunder lere und der gemeinschaft Christi abzuziehen.” 참조.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27.

98)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236;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6: “... pii reges mundi sua interdum autoritate, praesertim cum uitiatum sacerdotium est et deprauatae Ecclesiae, sacerdotes Domini constituunt et restituunt, ...”

99)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6.

100)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53.

101)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7.

102)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48sq. 부씨와는 달리 루터는 이단이 영적인 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정부에 의해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참조. LW 2(Von weltlicher Obrigkeit. 1523), 383 (= WA 11, 268.): “Ketzerey ist eyn geystlich ding / das kan man mitt keynem eyß en hawen / mitt keynem fewr vertrennen / mitt keynem wasser etrencken, Es ist aber alleyn das Gottes wort da / das thutts ...”

그리스도께서 정부 치리와 나란히 ‘그분의 교회의 영적 치리’ (die geystliche zucht seiner gemeyn)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¹⁰³⁾ 왜냐하면 정부들은 선천적인 ‘불경건’ (impietas)과 ‘불의’ (iniustitia) 가운데 있는 인간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경건’ (pietas)과 ‘의’ (iustitia)로 교육시킬 수는 없다.¹⁰⁴⁾ 오직 ‘참된 사랑과 인내의 증보자’ (verae charitatis atque patientiae largitor)이신 우리의 왕만이 자신의 ‘말씀과 성령’ (verbum et Spiritus)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¹⁰⁵⁾ 여기서 부씨는 시민적 치리와 교회적 치리를 분명하게 구분한다.¹⁰⁶⁾ ‘외적인 처벌’ (die eussere straff)인¹⁰⁷⁾ 시민적 치리와는 달리 교회 치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만 주신 열쇠권능을 통해 묶고 푸는 것이다.¹⁰⁸⁾ 이런 ‘교회치리와 처벌’ (kirchenzucht und straf)은 항상 경건한 정부의 치리와 처벌과 나란히 정위되는 것이지 위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¹⁰⁹⁾ 그 둘 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위해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 사용

103)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90.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부씨의 ‘기독교 공동체’ (Christlichen Gemeinschaften) 운동이 교회 치리의 독립성에 대한 열정적인 강조의 논리적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부씨의 의도는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려는 것도, 스트라스부르 교회를 두 개로 찢으려는 것도 아니었다. 부씨는 다만 두 개의 독립적인 ‘몸’ (copora)인 교회와 국가가 가능적으로 구분되기를 원했을 뿐이다. 참조, J. Rott, ‘The Strasbourg Kirchenpfleger’, 128.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신학자들 사이에 그 운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J.M. Kittelson, “Bucer and the ministry of the church”, 83-94, & G. Hammann, “Ecclesiological motifs”, 129-143. 키텔슨은 ‘교회의 작은 교회’ (ecclesiolae in ecclesia) 혹은 ‘기독교 공동체’ (Christliche Gemeinschaften)의 설립이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본 반면에 함만은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교리를 중심으로 한 내부로부터의 통일성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이 통일성은 그 도시에서 날뛰는 여러 종파들로 인해 너무 위협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고 판단한다.

104)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8.

105)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1. 참조, M.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70.

106)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90-206.

107)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49 옆여백주.

108)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90.

109)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91 en 206. 부씨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 참조,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4-17.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정부의 검토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신앙적인 권면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경건한 왕과 군주의 엄한 법에 의해서도 추방되어야 한다.¹¹⁰⁾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그리스도인 각자는 그리스도의 명에 아래 있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신을 지키되, 그분의 말씀의 종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파멸적 불순종과 멸시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악하고 인간적인 폭정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¹¹¹⁾ 부씨의 정치적 이상은 매우 기독교적인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정부로서 다스릴 수 없는 '참된 기독교 공화국' (*vera respublica christiana*)을 재건하는 것이었다.¹¹²⁾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독교 정부는 하나님의 교회와 공역한다.¹¹³⁾ 특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과¹¹⁴⁾ 결혼과¹¹⁵⁾ 교육은¹¹⁶⁾ 그 두 기관의 공역 범주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씨에게 있어서 '개혁'은 단지 교회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이기도 하다.¹¹⁷⁾

110)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17.

111)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238: "Durch dise mittel würdt sich eyn jeder Christ vor der so verderblichen ungehorsame und verachtung Christi in seinen dienern under dem joch Christi und in seinem reich wol bewaren und erhalten."

112) MBDS 7(Von der waren Seelsorge, 1538), 151: "Nachdem dann die Christen die aller Christichsten leit̄ zur regierung ordnen sollen, gepuret sich inen auch, das sie in die Oberkeit niemand erwehlen, der nit aller dingen der Kirchen Gemeinschaft halte; ..."

113) 참조, M. de Kroon, *Bucers Obigkeitsverstandinis*, 162.

114)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43-152, 특히 150.

115)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52: "Cum etenim coniugium res sit politica, homines, ..., non tantum Ecclesiae doctrina et disciplina instituendi et adducendi, uerum reipublicae quoque legibus et iudiciis ad haec expediendi sunt, iuuandi atque compellendi." 여기서 부씨가 지적하는 것은 결혼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뿐만 아니라, 시민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 업무와 관련하여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 J. Selderhuis, *Huweljik en echtscheiding*, 278-287.

116)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14 & 236-240. 참조, E.-W. Kohls, *Die Schule bei Martin Bucer*, passim, 특히 49-52 & 66sq. 콜스(Kohls)는 부씨의 교육 개념을 '공공의 이익' (*gemein nutz*)에 대한 생각과 연결시킨다.

117)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06, 120 & 130.

V. 정부에 대한 순종

“모든 사람은 시행정관에게 순종해야 한다.”¹¹⁸⁾ 즉, 정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¹¹⁹⁾ 마태복음 17장 24-27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예 (exemplum Christi)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populus Dei)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시행정관 (magistratus)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¹²⁰⁾ 바울 역시 ‘영 (anima)이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 (omnes potestates)에게 종속된다고 가르친다.¹²¹⁾ 하지만 이 모든 권세들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고 세워지기 때문에¹²²⁾ 모든 사람, 즉 정부인사들과 국민 모두가 ‘유일무이하신 최고통수자’ (unus et solus princeps)이신 전능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¹²³⁾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데, 그 가운데는 그분에 대한 신앙과 형제의 구원을 위한 진실한 신앙고백과 진리에 대한 생생한 열심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¹²⁴⁾

118) B. Ev. (1536), 372 옆여백주: “Omnem hominem parere oportet magistratui.” 참조, MBDS 17(Ein summarischer vergriff, 1548), 141.

119)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57: “... tamen omnes ciues eius, omnesque eorum pastores et doctores oportere mundi potestatibus, quibus Dominus gladii administradonem commisit, esse subiectos, ...” ; B. Ev. (1536), 372: “Quare qui non fuerit homo imperio magistratus poterit sese subducere, hominum nemo.” 참조, M.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 65.

120) B. Ev. (1536), 372; B. Rom., 569 [sic! 557].

121) B. Ev. (1536), 372 & 374; B. Rom., 558: “Omnis anima potestatibus eminentioribus subiecta est.” 부씨가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인 ‘potestas’의 복수형인 ‘potestates’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형태의 복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다. 참조, M.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84sq & 91sq.

122) B. Ev. (1536), 374: “Non enim est potestas nisi a Deo: quae vero sunt potestates, a Deo ordinatae sunt.”

123) MBOL 1(Epistola Apologetica, 1530), 114.

124) B. Ev. (1536), 374: “At ipso fidere, ac confiteri in salutem fratrum suam ueritatem, eamque uita sectari, haec ut Deus nunquam ablata uult suis, ita ea nulli etiam praefectorum eius, nempe magistratuum concedenda sunt, neque ferendum, quod contra haec imposuerint, aut imperarint. Certum enim tum est, non agere eos ex uoluntate, imo contra uoluntatem communis omnium principis Dei, cuius solius imperio addicti sumus.”

그러므로 정부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어떤 명령도 내리지 말아야 한다.¹²⁵⁾ 정부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순종의 의무는 끝나고 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²⁶⁾ “사람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한다.” (행 5:29)¹²⁷⁾ 하지만 여기서 부씨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 각자의 능동적인 저항과 무장 저항을 의도하지 않는다.¹²⁸⁾ 부씨의 저술 어디에서도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권에 관한 과격하고 혁명적인 사상을 발견할 수 없다.¹²⁹⁾ 악한 정부가 자신들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공화국들’ (*respublicae*)에 ‘참된 왕들’ (*veri reges*)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¹³⁰⁾ 우리는 이것을 ‘수동적 저항’ (*passiver Widerstand*)이라 부를 수 있다.¹³¹⁾ 왜냐하면 모든 인간 권력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정부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¹³²⁾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권세를 가진 자들만이 다른 권세 잡은 자들의 악행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저항권을 가진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 정부들, 즉 세황적 권력가들과 군주적 권력가들뿐만 아니라 도시 행정관들조차도 ‘순수 권력’ (*merum imperium*)을 가지는데, 그들은 이것으로 가르침과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공적인 죄악

125) B. Ev. (1536), 374: “At huiusmodi sunt cuncta magistratus edicta, quae nihil pugnant cum gloria Dei imperant.”

126) B. Rom., 573: “... quia non possunt [Christiani] deum posthabere hominibus.”

127) B. Rom., 573: “Oportet deo plus obedire quam hominibus.” 부씨가 저항권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더 잘 (*plus Deo*)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66sq; idem,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145sq.

128) M. de Kroon, “De christelijke overheid”, 67; idem,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5, n.16 & 146.

129) 참조, M.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144-163; idem,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146-156.

130)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20.

131) M. de Kroon,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148.

132) B. Ev. (1536), 374: “Profecto omnes humanae vires inferiores sunt, quam ut magistratum a Deo constitutum exaurent.”

과 골칫거리들을 제거할 수 있고 제거해야 한다.¹³³⁾ 각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독립적으로 세워진 자신의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위 정부는 상위 정부가 기독교 '경건 (pietas)을 위협할 경우에 무장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다.¹³⁴⁾ '개혁의 정당성' (ius reformationis)이라는 부씨의 원리는 바로 이것에 기초되어 있다.¹³⁵⁾ 정치적 자유에 대한 부씨의 개념은 여기서 기원된다. 모든 정부는 그들 자신의 권력을 오직 교회 건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부씨의 정치 모토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게바와 바울과 아볼로와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다. 하지만 이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 주님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과 같다." ¹³⁶⁾

133) B. Rom., 573: "... cum hi principes & magistratus merum imperium habeant, ... Proinde necesse est, vt quique magistratus, quibus merum imperium est, apud eos, qui in ipsorum viuunt Republica, cunctis malis operibus, quae ipsi mala esse non dubitant, terrori sint." 부씨의 '순수 권력' (merum imperium)이라는 법정적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passim, 특히 88sq; idem, *Bucer en Calvin*, 160.

134) M. de Kroon, "Bucer und Calvin über das Recht auf Widerstand", 150. 더 크라운은 1488q에서 지적하기를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부씨가 적극적 저항의 문제를 원리적으로 취급하고 성경의 해설이라는 창을 통해 취급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더 크라운에 따르면 '경건 (pietas)이라는 개념은 부씨에게 있어서 "이중 구조, 즉 신앙의 카테고리이면서 또한 윤리적 카테고리"이다. 참조. idem, *Bucer en Calvin*, 104.

135) MBDS 6/2, 20. '최고 권력들' (potestates superiores, 황제와 국왕들 같은)과 '하위 권력들' (potestates inferiores, 군주들과 시장들 같은)의 정치 구조에 대한 부씨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M. de Kroon, *Bucers Obrigkeitsverständnis*, passim, 특히 4 & 150-158; MBDS 6/2(Von Ampt der oberkait. 1535), 30. n.34; MBDS 6/2(Dialogi. 1535), 53.

136) MBOL 15(De regno Christi. 1551), 121: "Ecclesiarum Christi sunt Cephas, Paulus et Apollo et mundus uniuersus; illae uero nullius, quam unius regis et Domini nostri Iesu Christi, sicut et ille est Dei, 1. Cor. 3 [22-23]."

VI. 결론

부씨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한다. '나라' (regnum)로서 교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다스리신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하늘 나라이다. 그 나라는 항상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 구현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regnum Christi)로서의 교회와 '세상의 나라' (regnum mundi)로서의 국가는 서로 혼합되어질 수도 서로 분리되어질 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부씨의 사상은 루터(Luther)나 쾰빙글리(Zwingli)의 사상과는 구분된다. 루터와 쾰빙글리에게 있어서 위법과 죄에 대한 처벌과 사면의 권리는 오직 국가와 정부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부씨는 그것을 교회의 영적 처벌권과 정부의 육적 처벌권으로 구분한다. 즉, 부씨는 교회 치리의 독립성을 주장한다.

부씨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는 양립한다. 교회는 영적 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반면에, 세상 정부는 물리적 칼을 가지고 모든 공적인 죄를 처벌한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씨의 눈에는 기독교 정부가 최선의 정치형태인데, 이것을 '기독교 공화국' (respublica christiana)이라 부른다. 즉, 교회와 국가는 각기 먼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씨에게 있어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확실히 필자가 서론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관계 모델 가운데 '상호 독립적 연합관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시대는 아마도 구약 이스라엘의 다윗 통치 시대일 것이다. 이런 부씨의 사상은 제네바의 개혁가 칼빈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스트라스부르 개혁가와 제네바 개혁가는 당대의 어떤 종교개혁가들의 견해보다도 서로 신학적으로 일치한다.

주제어(Key Words)

부써(Bucer), 교회(the church), 정부(the state), 통치(government), 그리스도의 나라(regnum Christi), 세상 나라(regnum mundi), 기독교 공화국 (Respublica Christiana / Respublica Christianorum), 기독교 정부(the Christian government)

약어표

- ARG =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 B. Eph. = 부써의 에베소서 주석 = Epistola D. Pauli ad Ephesios, 1527.
- B. Ev. = 부써의 복음서 주석
(1527) = Ennarationum in evangelia Matth^{ae}i, Mardi & Luc^{ae}, 1527 I-II.
(1536) = In sacra quatuor evangelia, Enarrationes perpetuae, 1536.
- B. Ioh. = 부써의 요한복음 주석 = MBOL II, Irena Backus, ed., Enarratio in Evangelion Iohannis
(1528, 1530, 1536), Leiden 1988.
- B. Iud. = 부써의 사사기 주석 = Commentarii in librum Iudicum, 1544.
- B. Ps. = 부써의 시편 주석 = S. Psalmorum libri quinque, 1529 (ed. 1554).
- B. Rom. = 부써의 로마서 주석 = Metaphrases et ennardtiones perpetuae epistolarum D. Pauli Apostoli... Tomus primus. Continens metaphrasim et ennarationem in Epistolam ad Romanos, 1536 (ed. 1562).

- LW = O. Clemen, ed., Luthers Werke in Auswahl
MBDS =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MBOL = Martini Bucer Opera Latina
MPL = J.P. Migne ed., Patrologiae cursus copletus. Series Latina
WA =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 1883sqq.

Abstract

The Relationship of Church and State on Martin Bucer

Dae Woo Hwang
(Kosin University)

The relation of church and state may be classified with the five models, namely the mutual conflict relation, the mutual mixed relation, the mutual independent relation, the mutual separated relation and the mutual independent coexistential relation. Bucer's view o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belongs to the last model, the mutual independent coexistential relation. For, according to Bucer, church and state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but cooperative mutually. He regards that the church has a spiritual power separated from the sword power of government. The church can open and close the heavenly Kingdom by the key as the Word of God, while the state governs the people by the physical sword as the political power. In this point Bucer thought that the church as 'regnum Christi' should not be mixed with the state as 'regnum mundi', nor separated from that.